

2. 화성성역의궤 (華城城役儀軌)



2.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화성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1794년(정조 18년)부터 1796년(정조 20년) 9월까지 화성 축성과정을 기록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와 1795년(정조19년)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배운 혜경궁 홍씨 회갑연 8일간을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가 있다.

화성성역의궤 편찬은 1796년 9월 화성유수 조심태의 주관으로 화성에서 편찬이 착수 되었으며, 그해 11월 초에 초고가 완성되어 1801년(순조1년) 9월 정리의궤청(整理儀軌廳)에서 정리자(整理字)라는 금속 활자본으로 발행되었다.

이 책의 구성은 첫 머리에 범례를 싣고, 권수 1권, 본편 6권, 부편 3권등 모두 10권 9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성성역의궤는 성역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작업내용(화성전도, 각 건물 설계도, 축성시 사용된 기기와 연장, 관청거리 오고간 공문서, 목수·석수·화공 등의 이름)과 돌덩이 하나 못 하나의 비용까지도 세밀히 기록한 자료로서 당시 조선의 높은 관리능력과 책임성을 찾아 볼 수 있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귀중한 자료이다.

1992년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사업을 창설하여, 2001년 현재 33개국 총 69건의 세계기록유산이 등록되었다.

화성의 세계문화유산지정과는 별도로 화성성역의궤와 원행을묘정리의궤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여 보전관리 되어야할 가치를 가지고 있다.

